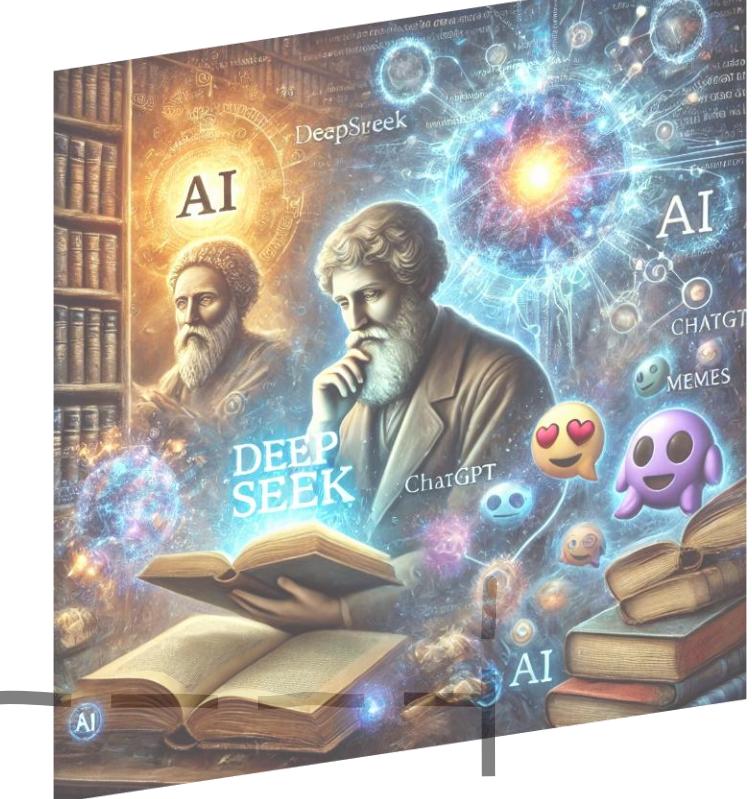


문학연구자의 욕망과 의존: 나무위키, ChatGPT and 디지털 짤의 대놓고 은밀한 매혹-디지털 시대, 학문의 정체성과 욕망의 재구성



#1. 디지털 시대 문학연구자의 욕망과 의존 : 나무위키, ChatGPT, 디지털 짤의 역설적 유혹

문학연구자의 정체성은 오랫동안 텍스트 해석의 독점적 권위에 기반해왔다. 중세의 성서 해석에서 현대의 구조주의와 해체주의에 이르기까지, 텍스트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은 학문적 권력을 확립하는 핵심이었다. 그러나 디지털 플랫폼의 출현은 이 권위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 나무위키의 집단 지성, ChatGPT의 생성 능력, 디지털 짤의 압축적 전유는 연구자가 더 이상 유일한 "의미의 창조자"가 아님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이 도구들은 표면적으로는 지식 생산의 민주화를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연구자의 욕망을 기계적 의존으로 유혹하며 학문적 주체성을 위협한다.

디지털 도구와의 관계는 단순한 기술적 활용을 넘어 "욕망의 정치학"으로 읽어야 한다. 예를 들어 나무위키는 "민주적 지식 생산"을 표방하지만, 익명성에 기반한 편집 전쟁은 오히려 가장 공격적인 목소리가 지배하는 새로운 권력 구조를 생성한다. 김춘수의 시 <꽃>에 대한 항목이 수십 차례 수정되며 중첩된 해석을 남기는 과정은 다성성이 아니라 "의미의 유령"을 양산한다. 연구자들은 편집 이력의 혼란을 학술적 권위로 포장하며, 집단 지성의 신화에 기대어 자신의 해석을 은폐하는 역설에 빠진다. 이는 푸코가 지적한 "권력/지식" 체계가 알고리즘 시대에 재현된 사례다.

ChatGPT와의 상호작용은 더욱 교묘한 욕망의 전이를 보여준다. "플로베르의 <보바리 부인>과 페미니즘 비평"을 주문하면 AI는 기존 논문의 클리셰를 재조합해 편리한 해석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 생성물은 창의성이 아닌 "언어적 시뮬라크르"에 불과하다. 라캉의 개념을 빌리면, 연구자는 AI가 대타자의 욕망을 충족시켜줄 것이라는 환상을 투사하며, 실재계의 복잡성을 기계적 출력으로 대체하려 한다. 이 과정에서 비판적 사유는 생성의 효율성에 희생당하고, 학문적 양심은 편의성에 굴복한다. 마치 발터 벤야민이 경고한 "아우라의 상실"이 디지털 텍스트에서 재현되는 것처럼, ChatGPT의 생성물은 원본 없는 복제물로서 해석의 깊이를 평평하게 만든다.

디지털 짤은 지식의 소비화를 극단으로 밀어붙인다. 데리다의 해체주의를 3초짜리 이미지로 압축하는 밍은 복잡한 이론을 소비자 친화적 상품으로 전락시킨다. 이는 장 보드리야르가 말한 "초현실적 시뮬레이션"과 유사하다. 짤은 이론의 본질을 왜곡하지만, 동시에 대중에게 철학적 개념을 노출시키는 역설적 계몽을 수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즉각적 소비는 연구자로 하여금 심층적 독해 대신 "지식의 편집증적 축적"을 추구하게 만든다. 이미지의 폭력성은 텍스트의 맥락을 단절시키고, 지적 계으름을 미학화한다.

이러한 도구들의 유혹 속에서 문학연구자의 위기는 "책임의 전가"로 귀결된다. 나무위키의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인용하거나 ChatGPT의 출력을 자신의 통찰로 포장하는 행위는 학문적 주체의 해체를 의미한다. 아감벤의 "장치" 개념대로, 디지털 플랫폼은 연구자를 생산적 효율성의 노예로 만들며 비판적 사유를 마비시킨다. 그러나 동시에 이 위기는 새로운 가능성을 내포한다. 나무위키의 편집 이력을 추적해 지식의 계보학을 복원하거나, ChatGPT 생성 텍스트를 해체주의적으로 역해석하며 AI의 무의식을 드러내는 행위는 도구를 "메타비평의 대상"으로 전환하는 혁신적 접근이다.

결국 디지털 시대의 문학연구자의 임무는 도구와의 관계에서 "비판적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는 편의성에 굴복하지 않으면서도 디지털 매체가 제공하는 잠재력을 경계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요구한다. 나무위키를 민주적 참여의 공간이 아니라 권력 투쟁의 장으로 분석하고, ChatGPT를 창의적 동반자가 아닌 문화적 편향의 산물로 해석하며, 디지털 짤을 단순화의 도구가 아니라 시각적 비평의 매체로 재발명할 때, 비로소 학문은 디지털 시대의 도전을 윤리적 각성으로 전환할 수 있다.

결론

디지털 도구는 우리의 적도 구원자도 아니다. 그것은 욕망의 거울이며, 이 거울을 정직하게 응시하는 용기만이 연구자로 하여금 해석의 권위를 새롭게 정의 할 수 있게 한다. 편집 이력의 흔적에서 권력의 흐름을 읽고, AI의 출력에서 시대적 무의식을 발견하며, 짤 문화의 유행에서 지식의 소비 패턴을 비판하는 행위야말로 디지털 시대 문학연구가 나아가야 할 길이다. 학문의 미래는 도구를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계를 넘어 도구와의 대화에서 새로운 윤리를 창조하는 데 있다.



This article was written using DeepSeek and chatGPT.

#2. 디지털 시대 문학 연구자의 내면 풍경 : 욕망, 의존, 그리고 역설의 길항(拮抗)전

문학연구자의 책상 위에는 더 이상 면지 긴 사전과 노란 페이지의 단행본만 놓여 있지 않다. 노트북 화면에는 나무위키의 '김춘수 <꽃> 해석' 항목이 열려 있고, 옆 탭에서는 ChatGPT가 '보바리 부인 페미니즘 독법'을 생성 중이며, SNS 알림으로 데리다 해체주의를 풍자한 디지털 짤이 반짝인다. 연구자는 이 모든 것 사이에서 자신의 학문적 정체성을 묻는다. '과연 내가 텍스트를 해석하는가, 아니면 도구들이 나를 해석하게 내버려두는가?'

1. 해석의 권위를 잃어가는 손 : 나무위키와 익명성의 유령들

첫 번째 충돌은 나무위키에서 시작된다. '민주적 지식 생산'이라는 슬로건 아래, 김춘수의 시 <꽃>에 대한 해석은 42번의 편집을 거치며 변주된다. 각주마다 '익명 사용자 A'와 'IP 123.xx'의 논쟁이 스크롤을 압박으로 쌓인다. 연구자는 초고를 쓰며 이 항목을 17번 참조했는데, 마지막 방문 때는 문득 의문이 든다. '이 해석들 중 진짜 '나'의 통찰은 하나도 없지 않은가?' 편집 전쟁의 승자는 가장 집요하게 '저항' 버튼을 누른 자일 뿐이다. 데리즈의 리즘 개념이 데이터베이스화되면서, 오히려 '가장 시끄러운 목소리'가 새로운 중심을 형성하는 아이러니. 연구자는 나무위키의 편집 이력을 추적하는 코드를 작성해본다. 파이썬 스크립트가 출력한 그래프에서 2023년 3월 2일 새벽 3시, 어떤 익명 사용자가 5분 간격으로 해석을 7번 덮어썼음을 발견한다. '이 사용자는 대체 무슨 욕망으로 이 시를 해체했을까?'라는 물음은 곧 '나는 왜 이 익명의 해석을 인용하려는가?'로 뒤집힌다.

2. 생성형 AI와 욕망의 투사 : ChatGPT, 편리함이라는 함정

ChatGPT 창에서는 '플로베르와 페미니즘' 분석이 12초 만에 탄생한다. 결과물은 그럴듯하다. 1990년대 여성주의 비평의 클리셰를 재활용한 문장들, 박사 학위 논문 20편에서 추출한 듯한 인용구들. 연구자는 생성 버튼을 8번 더 누른다. 매번 다른 각도의 분석이 쏟아지지만, 어딘가 깊은 꼴이다. 라캉의 '대타자의 욕망'을 떠올리며 깨닫는다. '내가 AI에게 원하는 건 진짜 통찰이 아니라, 내가 이미 알고 싶어 하는 답의 재생산이었구나.' GPT 모델의 임베딩 층을 시작화한 논문을 보니, '페미니즘' 벡터는 주로 '가부장제' '저항' '섹슈얼리티'와 강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2010년대 학계의 담론이 데이터셋으로 굳어진 탓이다. 연구자는 의도적으로 '보바리 부인과 자본주의'라고 프롬프트를 바꿔본다. AI가 생성한 텍스트에서 유토피아 소설 이론의 잔재가 발견된다. '이건 창조가 아니라, 문화적 무의식의 재생산이야.'

3. 짤의 폭력성과 계몽의 역설: 지식의 초단위 소비

트위터 타임라인에 '포스트모더니즘 입문' 짤이 올라온다. 데리즈의 <차이와 반복> 표지에 '진리는 없고 해체만 있다'는 문구가 덧붙여진 이미지. 연구자는 웃으며 리트윗한다. 3일 후, 학부생이 그 짤을 인용해 '데리다 이론의 본질'을 설명하는 모습을 본다. 복잡한 철학 이론이 3초의 시각적 쾌감으로 압축되는 과정에서, 연구자는 보드리야르의 시뮬라크르 이론을 체감한다. 실험적으로 '구조주의 vs 후구조주의' 밍을 만들어 업로드한다. 6시간 만에 2,300회 공유되지만, 댓글의 70%가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멋져요'다. '지식의 대중화'와 '지적 계으름의 미화' 사이에서 갈등한다. 그날 밤, 연구자는 짤 제작 알고리즘을 분석한다. 인기 밍 1,000개를 학습시킨 GAN 모델이 생성한 이미지들—모두 눈에 확 들어오는 원색, 7단어 이내 텍스트, 극단적인 대비. '우리의 뇌가 디지털 짤에 적응하는 동안, 텍스트 깊이 읽는 근육은 퇴화하고 있구나.'

4. 투명성의 윤리: 새로운 학문적 실천을 향하여

이 모든 실험 끝에 연구자는 노트에 적는다. "디지털 도구는 거울이다. 그 거울이 비주는 내 모습이 추악하다고 도구를 탓할 것인가, 아니면 그 추악함을 인정하고 새롭게 빚어갈 것인가." 나무위키의 편집 이력을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한다. 각 수정사항에 디지털 서명을 남겨, '익명성'이라는 가면 뒤에 숨은 권력 게임을 가시화하려 한다. ChatGPT로 생성한 텍스트를 반드시 녹색 배경에 표시하는 개인 규칙을 만든다. '이 말은 내 것이 아님'을 시각적으로 각인시키기 위해서다. 디지털 짤에는 QR 코드를 삽입해 원본 텍스트로 연결된다. 밍의 겉보단 단순함과 이면의 복잡함을 동시에 보여주려는 시도다.

맺으며: 해체의 시대, 재구성을 위한 선언

디지털 도구와의 동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다. 문제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넘어, '도구 자체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 데 있다. 나무위키의 편집 전쟁을 계보학적으로 추적할 때, ChatGPT의 생성 패턴을 문학비평적으로 해독할 때, 디지털 짤의 전파 경로를 사회학적으로 분석할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학문적 윤리의 지도를 그릴 수 있다. 이 길은 편리함의 유혹과의 끊임없는 투쟁이지만, 그 투쟁 자체가 바로 디지털 시대 문학연구의 아우라다. '해석의 권위는 이제 텍스트에서 네트워크로, 개인에서 알고리즘으로 이동했다.' 우리의 임무는 그 이동의 궤적을 해독하며, 인간적 사유의 불편함을 계속 증명하는 것이다.'